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혜문 스님
문화재 제자리찾기 대표

청와대 대문의 일본식 석등을 철거하라

우리 문화적 전통에서 볼 때는 대단히 이질적인 것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좀더 심도 있게 살펴보면 우리는 청와대 대문의 석등 양식이 일본 야스쿠니와 같은 신사의 양식이라 사설과 조우하게 된다.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우리의 궁궐건축은 일본식 조경에 많이 오염될 수밖에 없었고, 해방 이후 궁궐의 일본식 조경문제는 사회문제가 되어 지속적으로 철거되어 왔다. 최근에도 창덕궁 앞의 일본식 석등, 환구단의 일본식 석등, 국립서울현대미술관의 일본식 석등 등이 잇달아 철거된 것이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대통령 관저로 쓰이는 청와대는 원래 조선시대 경복궁의 일부였다. 그러나 일제의 국권침탈 후 조선총독부는 경복궁 안에 청사(廳舍)를 신축하면서 1927년 오운각(五雲閣) 외의 모든 건물과 시설을 철거하고, 총독관저를 이곳에 짓는다.

따라서 역사적 경위를 고려할 때 청와대가 일본식 조경에 오염된 여지가 많았고, 실제로 이미 학계와 문화재청에 의해 '일본식 조경' 문제가 지적된 사항이었다. 그러나 다른 궁궐의 일본식 조경이 철거되거나 개선된 것에 반해 청와대의 일본식 조경문제는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흐름에 힘입어 나는 2013년 1월 청

와대의 석등에 대해 철거를 요청하는 소장을 서울중앙법원에 제출했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청와대 석등이 일본식 석등으로부터 파생한 것인지에 대해 문화재청에 사실 조회를 신청했었다. 문화재청은 석등은 궁궐 조경에 사용된 적이 없으며, 사찰과 묘지에만 나타나는 점, 일본 신사 출입문에 석등이 설치된다는 점, 그리고 청와대 석등이 일본 신사의 석등과 일부 유사성을 보이는 점 등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끝내 청와대 석등을 철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 한 사람이 정부기관의 구조물에 대해 철거를 신청할 민사상의 권리가 있다고 판斷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되돌리켜 보면 2010년 경술국치 100년을 맞는 시점에도 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상대로 무모한 소송을 진행했던 적이 있었다. 국과수에 보관된 여성생식기 표본을 폐기하라는 소송이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일제시대 유명한 기생 명월이의 생식기 표본을 보관하고 있었다.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명월관 기생 명월

이가 사망한 뒤 일본 경찰이 성적인 호기심

에 의해 명월이의 생식기를 절취, 인체 표본

으로 만들었다는 소문이 있었다. 사실 확인

결과, 소문은 사실이었다. 나는 성적 호기심

에 의해 여성 생식기를 표본으로 만든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표본의 파기와 장례절차를 봉안해 줄 것을 사법부에 요청한 것이었다.

사법부는 국과수에 대해 표본의 파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화해권고를 제시했고, 국과수는 이를 받아들여 여성생식기 표본을 폐기했다. 재판에는 쟁점이 이른바 배배가 결국에는 승리로 이어진 셈이었다.

청와대 정문은 우리나라 얼굴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청와대 정문이 '솟을 대문'과 같은 모습으로 견립된다면, 경복궁의 풍광과도 어울릴 뿐 아니라 전통의 한국미를 고상하게 풍겨낼 수 있지 않을까? 이를 담고 소중한 우리의 전통양식을 배제하고, 굳이 일본 야스쿠니 신사 같은 일본식 석등을 언제까지 그곳에 남겨 놓아야 하는 것일까?

나는 즉각 항소를 결정했고, 조만간 고등법원에서 청와대 일본식 석등 철거의 2차전을 준비 중이다. 문득 언젠가 청와대 앞길에서 한국미가 물씬 풍기는 전통 솟을대문을 만나는 날이 올 수 있을까 꿈꾸어 본다. 어쩌면 나는 고등법원에서도 또다시 패배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믿는다. 2013년의 대한민국에서의 배배가 영원한 배배는 아닐 거라고.

의료칼럼

한국 의료의 위기



허정

에덴병원장

광복 이후로 우리나라의 의료 발전은 무에서 유로 창출되었으며 현재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했다. 그로 인해 국민의 평균수명이 80세를 넘어 100세를 바라보는 정도까지 됐다. 이러한 발전의 원동력은 누가 뭐래도 의료의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광복 이후 우리나라 의사 수는 불과 수백 명에 불과했으며, 병원다운 시설도 갖추지 못했고 더욱이 6·25 전란을 겪으면서 그나마 활화됐다. 영유아 사망률이 1000명 당 300~400명에 이르고 대부분이 둘을 넘기기

어려웠다. 한국 사람의 평균 수명도 35세 전후이며 각종 질병 및 전염병에 무방비로 노출됐다. 60~70년대만 하더라도 질병에 걸리더라도 치료받을 만한 의료시설은 물론 의료인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으며, 외국 선교사들의 의료가 그나마 한 가닥의 등불이었다.

현재 동남아나 아프리카에서 겪는 의료시설과 환경을 유추해보면 짐작이 가능, 우리 의료선교인들이 저개발국가에서 행하고 있는 의료선교사업과 비슷한 실정이었다. 다행히 유능한 인재들이 의료계에 진출하면서 미국식 선진의료시스템을 공부하고 수련 받고, 외국에 가서 연구하고 연수를 하는 등 갖은 노력으로 우리 의료 수준은 하루가 멀다하고 발전을 거듭해왔다.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적인 차이, 유색인종으로서의 차별 대우, 많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공부했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들은 눈물 없이 들을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러한 노력과 열정, 우리 국민들의 우수성 그리고 애국심이 선진의료로 발전시키는 밑거름이고 원동력이었다. 참으로 선배들에

게 감사할 따름이다. 그후 1970년대 말부터 시작된 전국민 의료 보험 제도가 80년대 중반에 정착되면서 우리의 의료시스템은 전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가장 쉽게 이용하는 세계 최고수준에 도달했다. 그러면서 세계에서 가장 저수준으로 현재 의료 계가 지탱해 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최근 전국민들에게 의료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정직적 솔로건으로 4대 중증 환자들의 보장성 강화 등 연일 의료계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의료보험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일부 의료항목들의 보험 보장성 강화를 하면서, 의료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의료계는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 서울대병원 등 5대 병원과 대형 병원들의 적자들이 눈덩이처럼 커가고 있으며, 연구 및 교육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의료 발전과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투자 역시 가로막혀 있는 실정이다.

기고

광주 한상대회 감동이었다

제이명
미캘리포니아주 세리토스 에너지 대표

지난주 고국의 광주시를 방문하고 캘리포니아로 돌아온 지금, 나는 감사와 감동을 담아 이 글을 쓴다. 나는 서울태생으로 일찍이 미국 이민을 와 전기, 화학, 에너지관련 사업으로 기반을 닦은 교포 사업가다. 나는 매년 한 번씩 미국 한인 상공회의소의 주선으로 미주 한상으로 뵙고 고국에서 열리는 한상대회에 참가해왔다.

한상대회는 그 취지가 매우 좋지만 솔직

히 대회 자체가 매년 나의 사업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었다. 발전하는 고국의 산업을 구경할 기회이자 조건이 좋으면 수출입 계약도 체결하는, 반쯤은 고국방문여행을 겸한 가벼운 마음으로 참가해왔다.

그러나 12차 대회인 이번 광주 한상대회는 완전히 달랐다. 첫째, 대회 진행이 수준급이었다. 한국의 지방도시에서 진행하는 행사라 엄청난 대목이 많으리라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다. 솔직히 상해나 도쿄에서 실시하고 내실 있다고 생각한다. 대회 첫날 환영만찬에서부터 이튿날 산업체 방문, 부스 상담 등이 참가자들에게 피로감을 주지 않으면서 각자의 사업 종류별로 잘 분산되어 있었다. 비즈니스에 도움이 된 물론 숙소와 음식도 좋았다. 이건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귀국 비행기 안에서 미국 측 참가자들과 뒷얘기를 나눈 결

과 공통된 평가다.

둘째, 전라도는 낙후된 지역이며 한국에서도 기업하기 힘든 곳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 또한 편견이었음을 알게 됐다. 브리핑 받은 대로라면 광주는 삼성전자와 기아자동차 앤코테크널러지, LG전자가 수출 주력기업이고 광산업과 금형산업이 발전한 곳이었는데 수년 전부터 총 수출액이 부진을 앞두고 있다는데 깜짝 놀랐다. 고국투자를 고려중인 한상이리면 광주가 매력적인 곳이라는 점을 확실히 느꼈을 것이다. 나도 광주업체와 상당액의 LED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왔다.

셋째, 지도자의 열정에 감동했다. 환영만찬에서 강연하는 광주시장은 간결하고도 선명하게 광주의 투자 적격성을 설명하고 한상 일행을 환영해주었는데, 진심이 느껴졌다.

특히 고은 시인이 보내온 축사를 시장이 직접 낭송하며 광주를 예찬하는 대목에서는

지방의 한 지도자가 자기지역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전해져왔다.

자투리 시간에 둘러본 광주 근교의 가을 경치도 너무 아름다웠다. 또 한상대회 조끼를 입은 아주머니 자원봉사자들이 속초까지 찾아와 시중을 들어주시겠다고 하는데서는 미안한 마음까지 느껴졌다.

대회를 마치고 미국에 돌아온 우리 캘리포니아지역 한상들은 요새 며칠간 계속 광주 이야기가 화제다. 수도권보다는 좀 멀지만 낮은 땅값과 풍요로운 자연환경, 전라도의 인심이 어우러져 기업하기 좋은 지역이며 향후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영남권보다는 훨씬 경쟁력이 높은 지역이라고 들을 수 있다.

이번 광주 한상대회에 참가한 세계 각지의 교포 기업인들이 투자간 구매간 고국과 사업을 할 때는 광주에서 해답을 찾는 일이 많아질 것 같다.

는 희귀한 것들이다. 이런 건강보조식품을 파는 인터넷에는 고혈압이나 당뇨, 심장병 같은 성인병에 특효라며 적극 권한다. 심지어 그걸로 약효를 보고 치료까지 완치됐다는 사용 후기도 함께 올라와 있으니 정말 놀랍다.

그러나 이런 건 누가 봐도 과대 하위광고다. 중대 질환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해서 판매하는 사례는 사용 후 부작용을 겪더라도 반품도 안 되고 피해구제도 어렵다. 그리고 혹여나 이런 의약품 같은 건

건강보조제로 약간의 효험을 봤다니 저더라도 이런 건 식품에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스테로이드 제제, 미약 성분의 진통제 등을 넣어 만든 식품이므로 장기간 복용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도 있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이다.

품질관리나 유통경로조차 명확하지 않은 이런 상품을 구매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말고 현명한 선택, 즉 운동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노력을 하자.

▲이종섭·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인터넷에서 항상 이런 사람들을 탓으로 팔린다. 그 이름도 처음 듣고, 어디서 누가 만들었는지, 제품에 찍힌 제조회사는 과연 국내에 있는지, 제품은 정부의 적절한 안전성 검사를 받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것들이다. 하지만 인터넷에 꾸준히 오르는 걸 보면 누군가가 이런 걸 사주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닐까?

인터넷에 올라오는 건강보조식품 이름을 보면 청상에 연골, 양태반호르몬 조절제, 사탕수수추출 혈관정지제 등 처음 듣

社說

1000대 기업 27개뿐인 참담한 지역경제

지난해 국내 매출액 1000대 기업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기업은 27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0위권에 포함된 기업은 현대삼호중공업(주) 1개사만이 이름을 올렸다.

5일 광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2012 전국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을 분석한 결과 광주 12개사, 전남 15개사 등 27개사에 머물렀다. 100대 기업으로 범위를 좁히면 현대삼호중공업이 지난 2011년 81위에서 16위나 떨어진 97위로, 광주·전남은 물론 호남에서 유일하다.

1000대 기업에 포함된 지역 기업 수는 예년과 큰 차이가 없으며, 향후 전망도 달라질 게 없다는 점에서 지역 기업환경이 얼마나 열악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반면 영남은 100대 기업 10개사, 1000대 기업 176개사나 되며, 충청권 역시 100대 기업 2개사, 1000대 기업 70개사로 호남과는 대조적이다.

일정 규모를 갖춘 대기업이 극소수라 는 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리 만무하고, 인구 유출과 지역 낙후의 악순환만 가져올 뿐이다. 광주시와 전남도 등 지자체가 기업 유치에 밭벗고 나서고 있지만, 그 효과는 극히 미미하다. 오히려 수도권 규제완화 등으로 기업의 역외 유출마저 우려되고 있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기업이 살아나야 하고 유망 대·중기업의 유치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지자체와 지역민이 합심해 올인해야 한다. 노사문화의 선진화, 기업에 대한 저렴한 부지와 인센티브 제공 등 타시·도와 차별화된 유인책이 필요하다.

여기 더 중요한 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의지다. 호남과 같이 낙후된 지역에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호남경제의 활성화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전남경찰은 가해자에 대해 ▲영창 9명 ▲인권교육 5명 ▲정직·근신 각각 1명 등의 징계 조치를 내렸다. 이번에도 가해자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엄벌의지를 밝혔지만 '사후야방문' (死後야방문) 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대책이 생색내기인데이 솔방법이 처벌이라는 데 있다.

의경 부대원은 시민과 접촉할 기회가 많아 개인은 물론 상하급자 간 각별한 생활지도가 필요하다. 경찰은 가족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지책부터 내놓아야 한다. 의경부대 간부들 역시 대원들이 건전한 내부생활을 통해 사고 없이 병역의무를 마치도록 더욱 세심하게 배려해야 할 것이다.

의경 부대원은 이번에도 대원들이 건전한 내부생활을 통해 사고 없이 병역의무를 마치도록 더욱 세심하게 배려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특히 우리나라 고령화와 고령화가 증가하면서 애완동물이 아닌 동반자나 반려동물 문화가 급속도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반려동물은 개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가구의 16%가 약 440만 마리의 개를 기르고 있고, 미국은 무려 40%에 달한다. 특히 미국에서는 반려동물이 사람 이상가는 대접을 받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개가 보는 케이블TV다. 지난해 2월 '도그(Dog)TV'가 서비스 돼 100만 가입자를 확보했다.

대개의 가구들이 개를 훈련시키고, 집을 나설 때 느끼는 안타까움과 미안함을 없앨 수 있어 앞으로도 대접을 받고 있다. 지난해 전국에 조만간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버리는(유기) 경우가 많아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되면서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되면서 유기동물 또한 많다는 게 아이러니할 뿐이다.

선진국을 보면 반려동물 문화가 국민소득 수준에 따라 발전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가 되면 반려동물 문화가 시작되고, 2만 달러로 오르면 반려동물이 확산되며, 3만 달러가 되면 반려동물이 단순한 동물이 아닌 인격화되면서 가족화하는 단계로 발전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반려동물 문화 확산 시기로 구분된다.

光州日報
사장·발행·편집 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创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 〈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내
〈대표 FAX 222-4918〉 경제부 2200-663